

* 유 지 영

목차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제한점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2. 자료수집 절차
3. 자료분석 방법
4.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III. 연구결과

1. 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2. 학습자 성향에 대한 인식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한국체육대학교 생활무용학과 강사, 한국춤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논문투고일 : 2015.01.30. 심사일 : 2015.02.28. 게재확정일 : 2015.03.10.

Aspects of cultural intermediary's awareness about cultural arts education support project

-Centered in the staffs at the senior citizens' welfare agencies-

Yoo, Ji-young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aspects of the culture awareness of the staffs at senior welfare agencies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cultural art education support project and identify them in depth.

Therefore, according to phenomenon research methodologi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n the awareness related to art education effect, the diffusion of awareness and transfer aspects were found. The satisfaction for art education effect got improved by expanding the weight of art education and was considered as equal education opportunity-related issues. And the concept of art education was found that it had expanded to advanced art activities.

Second, in the awareness related to learners' dispositions, both hold-up and diffusion of awareness appeared at the same time. In the course of identifying the dispositions of learners, social welfare workers had bias on past pure art. Just the necessity of art education support for each gender was considered more slightly.

Third, in the awareness of social welfare worker for professionalism consolidation, the aspects of awareness diffusion appeared divided into two. All the social welfare workers thought art education was required. Related to opening the majors at universities, their opinions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 career issues of them.

key words) cultural art, art education, culture intermediary, senior welfare, social welfare worker

주요어) 문화예술, 예술교육, 문화매개자, 노인복지, 사회복지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문화예술은 모든 사회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으로서 만민에게 주어질 새로운 인권의 중심이 되었다. 이와 같은 시류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빠르게 인지하였고, 문화예술의 선진사회로 성장하게 되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3-4). 2004년에는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설치되었다. 여기에서 학교와 사회기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 가장 큰 성과로는 단연 예술강사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조정은, 2014: 88).

그런데 본 사업에는 예술교육 활동의 주체가 되는 강사와 더불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지원해주는 문화매개자(cultural intermediary)가 있다. 여기에서 문화매개자란 ‘문화생산과 수용의 중간과정에 개입하는 모든 기구와 행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이상길, 2010: 154). 물론 학자마다 문화매개자에 대하여 개념과 수용범위를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지만 대부분 문화적 파급과 연동되는 중간계층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문화매개자의 직업분파에는 광고전문가, 패션전문가, 의료보건, 사회복지 관계의 직업, 문화생산 및 촉진(animation)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고 있다(이상길, 2010: 157).

그러므로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는 복기기관 담당자가 진흥원과 예술강사 간 가교(架橋)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문화매개자가 된다. 송유미(2006: 252)도 사회복지사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조직을 연결하는 주요 매개체라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공간배분, 수업일자 조율, 학습자 모집 및 면담, 그리고 예산처리뿐만 아니라

강사의 교육활동을 감식(鑑識)·평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기관 담당자가 문화매개자로서 중요한 이유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들의 인식 수준이 학습자들에게 주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혹은 예술활동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그와 관련된 지식의 확장 및 가치의 변화는 또 다른 지식의 이전과 가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그동안 예술학분야에서는 연구의 초점이 강사(김상희, 박진영, 2010; 박진영, 2013; 이병준, 이유리, 2014), 제도(김형숙, 남기현, 2014; 서한범, 2009; 신동인, 2009; 우주희, 2008), 사업실태(강영심, 김정, 2011; 전한호, 2011), 교육(아이람찬, 2011; 정지혜, 어의정, 이주옥, 2014; 황정은, 2009)에 만 편중되어 있었다. 즉, 교육활동과 관계된 1차적이고 표면적인 요인에 집중되어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분야로 파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 노인복지기관 담당자의 인식 양상에 초점을 두고 이를 보다 심층적인 방식으로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의 양상은 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학습자 성향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다면적으로 살펴 보았고, 이를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에서도 이야기를 통해 경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을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가 노인예술 교육과 관련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 첫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나 연구의 참여자가 무용분야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노인복지기관의 담당자이므로 무용교육의 인식이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둘째, 타 예술 분야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면담 시에는 예술장르 간 인식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 셋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 중 면담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사업수행 전후의 인식변화는 규명되지 못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는 진흥원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무용분야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노인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8명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2014년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실제 수행하면서 예술강사와 직접 피드백하는 이들로써 지역적 안배가 고려된 유목적표집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복지사 경력은 최소 2년에서 12년까지인 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무용분야이외에도 연극과 음악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 5명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구분	사회복지사 경력	연령	성별	복지기관 지역	예술 영역	소속
1	5년	20대	남	경기	무용, 연극	사회교육팀
2	2년	20대	남	경기	무용, 음악	문화복지팀
3	2년	20대	여	경남	무용, 음악	노인여성복지팀
4	3년	20대	여	Y광역시	무용, 음악	없음
5	12년	30대	여	경북	무용	복지팀
6	3년	30대	여	경기	무용, 연극	교육복지팀
7	11년	30대	여	경남	무용	없음
8	3년	20대	여	전남	무용	사회교육팀

2. 자료수집 절차

자료의 수집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1:1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담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연구에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모두 구하였다. 면담은 2014년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면담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1회만 실시하였고, 한 회기 당 약 30~60분이 소요 되었다. 면담 일시는 연구 참여자와 조율하여 결정하였으며, 장소는 모두 노인복지관 내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의 형식은 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비구조화된 질문을 연계하여 질문하는 방식인 반구조화된 질문을 적용하였다.

즉, 첫 번째 질문은 ‘노인예술 교육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그렇다면 기관에서 예술교육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가?’, ‘예술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예술교육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는가?’와 같은 하위질문으로 연계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술교육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의 성향은 어떠한가?’를 중심으로 ‘이들이 예술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교육 선호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와 같은 하위질문으로 연계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예술교육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전공개설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와 같은 하위질문으로 연계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을 즉시 전사(傳寫)하였으며, 동일한 참여자에게서 같은 내용의 답이 반복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특성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였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선입관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특히 Giorgi(1985)가 제안한 전사된 기록을 반복적으로 읽어 전체 내용 파악하기, 내용을 의미 있는 단위로 구분하기, 중복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난 부분을 제외하기, 의미단위 구조를 기초로 하여 의미의 구조 함축하기와 같은 4단계 구조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하여 3개의 구성요소에서 총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은 내용을 생략하지 않고 모두 서술하였다.

4. 신뢰도 및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Guba & Lincoln(1981)이 제안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가 얼마나 현상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반영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하는 ‘사실적 가치’와 관련하여 일상적 언어로 전사한 내용을 학문적 용어로 즉시 개작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시켰다.

둘째, 결과가 연구상황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면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유도하였다.

셋째, 연구를 다시 진행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일관성’확보를 위해 일정기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선입관을 배제하여야 하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의 구성요소에서 총 8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표 2〉 참조).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인식 양상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표 2.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인식 구성요소

사회복지사의 인식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육의 비중 ◇ 예술교육의 환경 ◇ 예술교육의 개념
학습자 성향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향과 경험여부 ◇ 학력과 경제력 ◇ 연령과 성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지식에 대한 기초교육 ◇ 대학에서의 전문가 교육

1. 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1) 예술교육의 비중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노인들의 예술교육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 평소 날카롭거나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 혹은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고집이 강한 성격을 가진 노인들이 예술교육을 받으면서 유순하게 순화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확인하였다. 또한 성격이 변하면서 사회적인 유대감이 긴밀해지고, 정서적 만족감이 실제 우울증이나 치매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예술교육만이 갖고 있는 효과와 특이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술교육의 효과가 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일종의 소속감과 소외되지 않으려는 욕구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복지관 활동이나 예술교육 활동에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되어 이에 따른 성취감과 만족감이 삶의 활력소와 동기부여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기존 복지관 수업에서 예술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예술교육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예술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성격에 변화가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평소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분들이 예술교육을 받은 후 성격이 부드러워 졌다거나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복지기관 활동에 적극적이고 높은 만족감을 갖게 된 것을 실제 느꼈습니다. 특히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일종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교육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지원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자 ②

예술교육을 통해 정서적인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발표회를 통해 성취감, 만족감을 느낌으로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이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 수행으로 예술 수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률이 거의 100%입니다. 현 기관은 예술교육이 50%정도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70%정도로 예술교육을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참여자 ④

예술교육은 대부분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서적 측면과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성 노인의 특성인 고집과 개인적인 성격이 예술교육으로 인해 순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즉 예술교육은 협동심과 이해심을 기를 수 있고 개인의 언어적, 행동적 순화를 이루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니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 참여자 ⑤

노인들이 예술을 하면 마음적으로 굉장히 젊어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발표회는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얻게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술활동이 갖는 특이한 효과성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술교육 나아가 예술활동은 노인들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 참여자 ⑥

노인복지에서 예술교육의 비중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매우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활동과는 달리 예술은 노인들이 접하기가 힘든 장르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에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되구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예술은 젊었을 때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라는 점에서 노인들의 예술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이에 따라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예술은 소그룹 활동이기 때문에 감성을 자극하여 인지,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성도 좋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치매 증상을 완화시킨 사례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신경을 많이 해서 노인분들에게 많은 예술에 관한 기회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참여자 ⑦

예술은 노인학습자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움직이는 댄스 수업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해낸 경우도 있었고, 초기 치매도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요. | 참여자 ⑧

2) 예술교육의 환경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들의 예술교육 효과를 매우 높게 치부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기존 복지관 예술교육과 분명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예술교육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를 온전히 체험하고 이를 상향평준화하기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과 예술장르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환경이란 강의실과 같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이나 지원정도와 같은 교육사업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 개선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강사, 기관의 교육비 지원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술교육의 효과를 단면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진흥원 사업이라도 무용수업은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청춘제)까지 참여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연극은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경험하지 못한 교육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생각하지만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자 ①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교육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술 교육은 노인분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구요. 특히 농촌과 같은 소외지역에서는 예술을 접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외지역에서의 예술교육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자 ⑤

농촌이라는 환경적, 지역적,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술교육을 많이 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전체 40강좌 중 약 25%정도만이 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상 예술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별로 없어 강좌를 많이 개설할 수 없었는데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좋은 강사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특성상 인근지역에 강사가 없어 타 지역에 사는 강사 선생님이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 참여자 ④

3) 예술교육의 개념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미 다양한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료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들의 경우 복지기관 이외에 다른 곳에서 예술을 접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므로 되도록 복지기관 내에서 많은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 때문에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문교육을 받고 이를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예술강사에게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즉, 보다 심화된 예술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이 아닌 예술활동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화된 예술교육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자신을 더욱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진흥원 예술교육은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행사에 참여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거리를 얻을 수 있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아마추어 무용단 수준이에요. 때문에 진흥원 사업을 통해 만나게 된 전문강사에 대하여 만족감이 매우 큼니다. | 참여자 ⑥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이에 대한 해소를 복지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단순한 여가생활에 치나지 않는데 이번 예술교육 사업은 그야말로 예술성과 작품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다른 교육과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도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참여자 ⑤

노인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지식이나 에티켓 등도 모르고 있구요. 그래서 예술문화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관에서 하는 예술교육과 예술활동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예술활동 기회라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자신을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혜택을 못받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기도 하지만요.

▶ 참여자 ⑥

2. 학습자 성향에 대한 인식

1) 성향과 경험여부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예술교육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표현력이 강한 분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예술교육 경험은 또 다른 교육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자존감을 고취시켜 결국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때문에 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관련 장르와 관련하여 이미 예술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배우고 싶은 교육에 대해 비교적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향은 예술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무용, 미술, 음악과 같은 순수예술 장르는 과거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사진과 같은 대중예술 장르는 과거의 경험여부가 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인분들이라도 자신의 성향이나 경험여부에 따라 예술장르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무용 수업을 모두 수강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지원사업에서도 그 분들이 대부분 신청하였습니다. ▶ 참여자 ①

기본적으로 성격이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특히 과거에 예술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좀 할 줄 안다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환경이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예술교육을 끝까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아쉬움 때문에 뒤늦게나마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물리고 이들이 다시 예술교육 지원사업 수업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 참여자 ③

예술교육은 예술에 대한 과거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유경험자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한 예술 장르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미술과 같은 실내 교육은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이해도, 만족도,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하는 편이고, 사진은 과거 경험이 없어도 야외활동이나 단체활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 참여자 ⑦

기본적으로 활발한 성격을 가진 분들, 표현력이 강한 분들이 예술활동을 좋아합니다. 이번 무용분야에 신청 할 때에는 기존에 무용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발레를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오신 강사님께 특별히 발레수업을 부탁했습니다. | 참여자 ⑥

2) 학력과 경제력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학력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습자들이 예술교육 혹은 예술활동을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학력이 높다는 것은 높은 지적·교육적 수준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경제력은 문화예술관련 여가활동을 위한 정신적, 시간적 여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경제력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지식과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춘 마음의 여유가 있는 학습자들이 예술교육 지원사업에도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예술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술교육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예술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하고, 소품이나 도구를 구입하는 데에는 교육비 이외에 개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예술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비와 활동비 전부를 지원한다 보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도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 복지관 예술교육 참여자가 거의 지원사업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 참여자 ⑦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이 있고 정보나 지식이 있어야 예술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고 각박하면 예술교육을 받을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시면 아무래도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술교육 지원사업에도 대부분 이러한 특성과 성향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 참여자 ⑤

3) 연령과 성별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자들 중에서도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 여성보다는 남성 학습자들이 예술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고,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적다고 말하였다. 즉, 60-70대 정도의 젊은 노인층이 신체적으로 활동력이 높기 때문에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예술활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열의는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들마저 남성들이 참여 할만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적어 사업지원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술교육을 선호하는 노인학습자들은 60-70대 젊은 층 중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신체적 활동 보다는 정적이거나 많은 인원들 속에서 조용히 활동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젊은 층들은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성취감이 만족감이 큰 활동을 선호하고 있는데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 참여자 ⑥

독거어른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외로움 해소에 예술활동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노인들은 감성이 메말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술활동을 통해 무뎠던 감성을 다시 자극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노래와 무용의 경우에 남자들이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다음번에 사업에 신청할 때에는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참여자 ⑦

성별에 따라 예술 프로그램 참여도가 다릅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표현에 관한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예술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무용은 남성 참여자들이 없고 다행히 기타나 색소폰 같은 악기는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참여자 ⑧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1) 예술지식에 대한 기초교육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복지시설에서보다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예술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복지사들의 역할은 예술교육 강좌를 기획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른바 기획자, 안내자, 정보 전달자라고 하였다. 때문에 예술교육 지원사업 신청 시 예술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만 강좌를 신청하여 학습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나 공간배정과 같은 물리적 지원 역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수행 시에는 강사와의 피드백을 위해서도 예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부 예술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아 이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사들에게 적합한 예술지식을 교육하는 기관이 매우 적고, 교육

기관이 있더라도 단기교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술지식에 대한 기초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예술장르의 폭이 너무 넓다는 점, 교육을 받을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도 대상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예술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가복지시설에서 일할 때에는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는데 노인복지기관에 와서 보니 예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이나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여자 ①

사회복지사들에게 예술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때 예술에 대한 교육이나 수업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과거 어느 복지재단에서 복지를 위한 예술교육에 대하여 교육 받은 경험이 있어 현재 노인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 다른 사회복지 전공자들도 처음 받는 예술복지 교육에 대해 신기해하면서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교육을 통해 예술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지는 못했지만 문화적 감수성이나 예술을 통한 감수성 등과 같은 기초지식을 쌓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경험이 사업지원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②

복지사들에게도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받을 곳이 없습니다. 강사와의 소통이라든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예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니까 강사가 하지는 데로 하는 편입니다. |참여자 ③

사회복지사들도 예술교육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의 방향과 교육의 개발, 기획 등에서 정보와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사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예술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④

복지사의 역할은 여러 가지 치료적인 부분을 중개해주는 중개인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술교육을 통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마다 수업방식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술과 관련된 교육은 정규과목에는 없으나 방학특강을 통해 미술치료를 특강식으로 접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평생교육원과 연계하거나 교양수업 등에서 예술관련 수업을 단발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실무에 실제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예술장르를 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 ⑤

복지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예술에 대한 기본지식 없이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신청 시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나 공간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술장르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기존 복지관 무용수업이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실버댄스 수업으로 이루어져서 작은 공간에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강사님한테도 큰 공간이 필요 없는 줄 알고 작은 공간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무용이라는 장르에 대해 잘 몰랐고, 또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참여자 ⑥

복지사들은 학습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참여를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지식과 정보 습득 차원에서 복지사들에게도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⑦

사회복지사들의 예술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에 오기 전에는 복지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고, 기본 지식이 없어서 아이디어나 기획에 대해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예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강사 선생님과 피드백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참여자 ⑥

2) 대학에서의 전문가 교육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예술교육이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소외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복지사로서 자신의 업무 기량을 높이려면 대학에서 미리 예술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다만 예술교육의 방향은 복지사 업무와 관련된 기획, 관리, 사업지원 등과 같은 행정실무 관련 지식이거나 예술장르에 대한 기초지식에서부터 프로그램 개발까지 다양한 실용적 예술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교육은 사회복지학과 내에서 전공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최근 사회복지학과의 전공 세분화에 따라 예술복지전공을 개설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가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예술복지전공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현재 설립되어 있는 복지기관들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들 졸업자들의 취업 진로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술교육은 청소년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이므로 사회복지사들을 양성하는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예술복지에 대한 교육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이어 외국인 복지 전공까지 세부전공으로 전문화 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예술복지 전공에 대한 개설은 충분히 가능성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대부분 기획, 관리, 사업지원 등 행정적인 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자 ①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이 대학에서 예술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실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할 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학부제 아래 세부전공은 복지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예술복지 전공자의 진로가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노인복지기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 전공자를 선호할 것이고, 장애인복지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 전공자를 우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술복지 전공자들이 갈 수 있는 취업의 길이 명확해진다면 전공개설까지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참여자 ②

대학에서 예술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고 취업하는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이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술의 종류와 분야에 대한 세부장르의 이해와 관련된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자 ③

사회복지학과의 수업내용이 사실 현장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되고 동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서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복지관 업무에서는 예술교육에 대한 업무 비중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사회복지학 수업에 예술에 대한 이해, 예술장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수업 개설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것은 학습자의 예술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사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참여자 ④

대학 교과과정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수업은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지관에 서 하는 예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미리 이론이나 실습을 통해 공부하게 된다면 나중에 취업 후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술관련 복지학과 전공으로 개설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술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교육이라고 해도 노인복지 기관에서는 노인복지 전공자들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참여자 ⑥

기본적으로 교양수업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시설이나 여가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에게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참여자 ⑦

예술이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되고 예술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치료, 예술복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공개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예술기획이나 각종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에 전문성을 띠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여자 ⑦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진흥원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 복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술교육, 학습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양상을 심층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계획된 연구수행 절차에 따라 1:1 심층면담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정보가 탐색되었다.

첫째, 예술교육 효과와 관련된 인식에서는 인식의 확산과 전이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만족감은 예술교육 비중 확대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하였다. 즉, 예술교육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한 학습자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예술교육 비중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관 담당자들이 예술교육에 대한 효과를 정신·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정경은(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정경은(2014)은 문화예술교육이 인지와 건강측면에서 노인계층에게 가장 효과가

크고, 특히 사회성 발달은 타 장르의 예술보다 무용장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교육 효과에 따른 예술교육 비중 확대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농촌과 같은 소외지역 혜택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전이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정은(2014)은 교육환경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긴 하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예술교육을 접해보지 못한 소외자들에게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목표 재인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예술강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원사업 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교육의 개념에서 나아가 보다 심화된 예술활동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따라서 복지관을 이용한다고 해서 학습자들을 모두 문화소외계층으로 치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며 진흥원 기초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77-78)에서도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을 문화애호계층으로 분류하는 등 문화향유 정도에 따른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학습자 성향과 관련된 인식에서는 인식의 정체와 확산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먼저 예술교육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과거 예술교육 경험이 있으며 성격이 활달하고 표현력이 강한 외향적 성향의 학습자들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높은 지적수준과 경제력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은희(2003) 역시 노인들에게 여가가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한 역할 없이 막연하게 긴 시간을 보내는 자유시간으로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개인적 성향, 가족 및 친착관계, 거주지, 경제적 여건, 건강상황 그리고 교육수준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홍 등(2014)이 분류한 노인 여가성향의 유형에 의하면 예술교육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은 지적, 사회적 여가동기를 갖고 있고, 진지한 여가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유형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인 사회복지사들은 이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기존 복지관 예술교육 학습자들이 다시 예술지원 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인식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 예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순수예술에

대한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편견(윤지은, 2014: 184)에 대하여 인식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일부 연구 참여자들이 남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과 사업지원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성별간 균등한 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소폭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인식변화에서는 인식 확산의 양상이 양분(兩分)화 되어 나타났다. 먼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실용지식과 관련된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본인을 예술교육에 대한 기획자, 안내자, 정보전달자와 같은 문화매개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하여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한다(Manthorpe et al., 2008: 1134).

따라서 미국사회복지협회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실천하고 전문기술을 발전·강화시켜야 한다(김경우, 2006: 209)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문영주(2011:92)는 조직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자기개발과 경력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예술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교육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용적인 예술교육을 학습할 만한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학과 내에 예술복지 전공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교양이나 전공선택 과목 정도로 개설하여 예술교육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즉, 전공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연구 참여자들은 최근 사회복지학부 내의 세부 전공 개설 추세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소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전공개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김현옥, 김경호, 하은영(2009)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학과 내에서 유사전공을 동시에 전공하는 복합전공자들이 단일전공자보다 전공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로 학생들이 진로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에서 소극적

인 의견을 피력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복지 전공이 개설 된다면 예술분야 전공자들이 사회복지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길 일이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 기관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 예술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고급예술로 치부되었던 순수예술은 더 이상 대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문화예술이 만민에게 주어진 인권의 중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4)이 되면서 문화소의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따라 사업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술지원 사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매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인식 양상 탐색에 목적을 두고, 인식의 확산, 전이, 정체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밝혀내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영심, 김경(2011), "특수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 실태와 교사의 인식", 발달장애학회, **발달장애연구**, 15(3), 113-134.
- 김경우(2006),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2), 201-231.
- 김상희, 박진영(2010), "예술강사지원사업 정책목표와 예술강사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문화예술경영학연구**, 3(2), 102-118.
- 김현옥, 김경호, 하은영(2009), "사회복지학 단일전공 학과와 복합전공 학과 학생들의 사회복지 전문성 인식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10, 37-67.
- 김형숙, 남기현(2014), "문화융성 시대를 위한 예술강사 제도 고찰", 한국조형교육학회, **조형교육**, 49, 123-145.
- 문영주(2011), "사회복지사의 개인 성향, 직무 특성, 역할 특성이 경력관리와 지식공유활동에 미치는 영향: 소속기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2), 91-123.
- 박진영(2013), "사회 문화예술교육 수업의 기획 배경 탐색: 기획 및 강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연구**, 8(3), 47-74.
- 서한범(200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현황과 진단",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 예술**, 2, 235-244.
- 송유미(2006), "사회복지사의 역할특성과 직무스트레스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사회복지개발연구**, 12(3), 251-272.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동인(2009). "연극 강사들의 역사와 비전 : 저는 연극 강사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 예술 2**, 199-210.
- 아이람찬(2011).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영화교육 :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교직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 예술 4**, 87-100.
- 우주희(2008).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두 가지 모델 : 강사지원모델과 단체지원모델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예술교육학회, **예술교육연구 6(2)**, 35-47.
- 윤지은(2014). "예술총에 대한 인식조사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183-201.
- 이민홍, 박영란, 이금룡, 엄기욱(2014). "노인 여가성향 진단 도구의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65**, 159-184.
- 이병준, 이유리(2014). "예술강사의 직업생애서 연구: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강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연구 9(5)**, 1-20.
- 이상길(2010). "문화매개자 개념의 비판적 재검토: 매스 미디어에서 온라인 미디어까지",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52**, 154-176.
- 이은혜(2003). "성남시 노인의 욕구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기관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지역복지정책 17**, 91-113.
- 정경은(2014). "문화예술교육 가치에 대한 학술적 접근", 2014 문화예술교육 2차포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2월 17일.
- 정지혜, 어희정, 이주욱(2014). "중학교 예술강사의 창작무용 수업 실천과정에 대한 교육적 해석",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발전논총 35(1)**, 55-77.
- 정한호(2011). "학교 예술강사의 수업실태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화연구 41**, 177-213.
- 조정은(2014). "사회예술강사의 직업의식과 음악교육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19**, 85-104.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0). 2009 문화예술교육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 황정은(2009). "문화관광부 문화나눔 사업 중 국악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분석 연구: 아동복지시설 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국악교육학회, **국악교육 27**, 211-236.
- Giorgi, A. (1985).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역,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현문사.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anthorpe, J., Morarty, J., Rapaport, J., Clough, R., Comes, M., Brght, L., & Liffie, S. (2008). There Are wonderful social workers but it's a lottery: Older people's views about social work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8(6), 1132-1150.